

## 「화엄경 약찬계」와 『신증경』의 성립과 전개

문 상 련(정각)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junggak@dongguk.edu](mailto:junggak@dongguk.edu)

- I. 서언
- II. 신라 하대 ‘화엄신증’ 염송과 화엄회
- III. 고려시대 『신증경』의 성립과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
- IV. 조선시대 『신증경』의 교학적 수정, 「이대경약찬계」
- V. 결어

\* 본 연구는 「봉은학술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 요약문

본 논문은 기존 「화엄경 약찬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발견된 사료를 제시하는 가운데 ‘약찬계’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상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1250년경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이 『화엄신중(경)』이라 불렸음과 함께, 1349년에는 이 『화엄신중(경)』을 간략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중』(略神衆)의 간행을 통해 현재의 「화엄경 약찬계」가 성립되었음을 말하였다.

또한 이때의 『(화엄)신중경』은 조선 초에 불교 의식의 중요 축을 형성했으며, 1573년 안심사 간행의 『송념예참원생등부』를 통해 볼 때 당시 『(화엄)신중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찬」과 「법화신중」, 「화엄신중」이 포함된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말하였다. 이후 17세기 중반 이래 기존 ‘화엄신중’의 예경 대상이 예적명왕(穢跡明王)과 범왕(梵王) 등으로 변한 채 기존 ‘화엄신중’은 예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1715년경에 찬집된 『예념왕생문』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에서는 기존 「화엄경 약찬계」에 대한 교학적 연구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 「광약찬계」(廣略纂偈)라는 새로운 형식의 약찬계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내용은 “불업(佛業)에 드는 요체를 취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885년 간행된 『화엄법화약찬총지』에 수록되었고, 여기 수록된 ‘화엄경 약찬계’는 1998년 『통일법요집』 ‘상용의식’ 항목 중 「신중청」 말미에 의식문의 한 부분으로 수록되어 한국불교 의식문 중 일부로 남을 수 있었음을 말하였다.

주제어(7개)

화엄신중, 화엄경 약찬계, 신중경,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 예념왕생문, 화엄법화약찬총지, 광약찬계

## I. 서언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매년 연초에 ‘정초(正初) 신증기도’를, 매월 초하루에는 ‘초하루 신증기도’라는 이름으로 ‘신증기도’라는 특정 의식을 행한다. 그리고 ‘신증기도’ 말미에 「화엄경 약찬계」(華嚴經略纂偈)를 독송하고 있다. 이 「화엄경 약찬계」는 1935년 간행된 『석문의범』의 「지송편」(持誦篇) ‘약찬계(畧纂偈)’ 항목에 실린 것으로,<sup>1)</sup> 특정 의식문의 일부가 아닌 상황에 따라 지송되었던 계송 내지, 도량석의 송주(誦呪)를 대신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간행한 『통일법요집』의 ‘상용의식’ 중 「신증청」 말미에 「화엄경 약찬계」가 수록되어,<sup>2)</sup> 비로소 ‘신증기도’에서 「신증청」이란 의식문(儀式文)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화엄경 약찬계」는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라는 제목에 이어 7자(字) 110구(句)인 총 770자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만 통용되고 있다. 이는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번역한 <60권 화엄경>을 7구 210자로 정리한 의상(義湘)의 찬술 「법성계」와 함께, <80권 화엄경>의 핵심을 정리한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화엄경 약찬계」에 대해 몇몇 연구가 행해진 바 있다. 전해주는 「화엄경 약찬계」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행한 바 있으며, 「화엄경 약찬계」의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1885년 해인사 간행의 『화엄법화약찬총지』를 든 바 있다.<sup>3)</sup> 또한 남동신은 ‘(화엄)신증경의 성립 과정’을 말하는 가운데 『삼국유사』에 소개된 화엄신증 기록 및 해인사 길상탑기(吉祥塔記) 등의 사료와 함께, 『균여전』에 기록된 『신증경』의 내

1) 安震湖 編(1935), 202-205.

2)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1998).

3) 전해주(1997), 91-117.

용, 해인사 사간판전(寺刊板殿)에 소장된 자료들에 주목한 채 ‘(화엄)신중경의 성립 과정’을 개설하였다.<sup>4)</sup> 이 가운데 남동신의 서술은 「화엄경 약찬계」의 초기 성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검증 내지 추가할 점이 존재한다. 한편 「화엄경 약찬계」의 초기 성립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생겨난다.

이에 필자는 남동신이 언급한 내용 외에, 새롭게 발견된 사료를 제시하는 가운데 ‘약찬계’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상술코자 한다.

## II. 신라 하대 ‘화엄신중’ 염송과 화엄회

현재의 기록 중 화엄신중과 관련된 최초의 내용은 문무왕대(661-681년 재위)의 예를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 조에서 발견되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보)천이 장차 입적하는 날 후일 산중에서 행할 나라에 보탬이 될 일을 남겨 두었다. 이르되 … (중략) … 보천암을 화장사(華藏社)로 고쳐 세우고, 원상(圓像) 비로자나 삼존과 대장경을 안치하고, 복전(승) 다섯 명이 대장경을 항상 열람하고, 밤에는 화엄신중을 염하며(夜念華嚴神衆), 매년 화엄회를 1백일 동안 베풀되 법륜사라 칭하여라 …(중략)… 행실 바른 복전(승)에게 명하여 길이 향화(香火)를 받들면, 국왕이 천추를 누리고 백성은 평안할 것이며, 문호(文虎, 문무왕)는 화평하게 될 것이다.<sup>5)</sup>

위 기록은 문무왕 당시에 ‘화엄신중 염송’과 ‘화엄회’가 행해졌다는 것으로—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권 화엄경>이 695-699년 번역

4) 남동신(1993), 152-153.

5) 『三國遺事』 塔像第四, 臺山五萬眞身.

된 점으로 미루어—이때의 ‘화엄신중 염송’과 ‘화엄회’에서는 421년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 화엄경> 「세간정안품」에 등장하는 34위 신중 및 그 명호<sup>6)</sup>를 염송했을 것이다.<sup>7)</sup> 이 기록은 ‘밤에 화엄신중을 염송했다’는 사실과 함께 ‘화엄회’라는 의식이 행해졌음을 알려주는 예로, 7세기 후반에 화엄신중과 관련된 일종의 의례문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한편 『동문선』에는 고려의 정명국사 석천인(釋天因, 1205-1248)이 「고적기」(古迹記)를 참고해 쓴 「천관산기」가 실려 있는데, 그 안에 신라 신무왕과 관련해 9세기 초반의 ‘화엄신중 예창(禮唱)’에 대한 다음 내용이 실려 있다.

신라 신호왕(神虎王, 神武王, 839년 재위)이 태자로 있었을 때 마침 임금의 견책을 받고 산의 서쪽 완도로 내려갔는데, 화엄홍진(華嚴洪震) 대사가 태자와 친한 사이였던 까닭에 동궁(東宮)의 다급한 얘기를 듣고 달려가 이 절(천관사)에 머물며 ‘밤에 정성껏 화엄신중을 부르고’ 예를 올렸다(夜精勤 禮唱華嚴神衆). 그러자 모든 신중(神衆)이 부름에 감응하여 절의 남쪽 봉우리에 늘어섰으니, 지금의 신중암(神衆岩)이 그것이다.<sup>8)</sup>

이외에 895년 해인사의 별대덕(別大德) 승훈(僧訓)이 건립한 <묘길상탑(妙吉祥塔)>(보물 합천해인사 길상탑)에 납입된 4매의 탑지(塔誌) 중 「백성산사 전대 길상탑중 납법침기」에는 ‘길상탑 안에 납입한 법보(法寶)의 기록’으로 다음 내용이 적혀 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 『법화경』 1부, 『정명경』 1부, 『수구즉득대자재다라니』, 『금강반야경』 1권, ①화엄 2불의 명호와 ②40류 신중의 열명(列

6) 『大方廣佛華嚴經』(T9, 395b-397a).

7) 인용문 중 “安圓像毗盧遮那三尊”에서, 盧舍那佛 대신 <80권 화엄경>의 주존 毘盧遮那佛 명칭이 등장한 것은 『三國遺事』의 찬술자 一然이 <80권 화엄경>이 성행한 당시의 관점에서 盧舍那佛을 毘盧遮那佛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8) 『東文選』 권68, 天冠山記.

名), ③위광(威光)이 만난 불우(佛友)의 이름, ④선재가 만난 55선우(善友)의 이름들, 53불의 이름, 10대 제자의 칭호, ⑤7처 9회 39품의 이름들 및 ⑥ 40심(心) 십지(十地)의 이름. 10권 『금광명경』 31품의 이름들, 『대반야경』 16회 278품의 이름들, 불경 잡어(雜語), 「화엄성기(花嚴性起, 화엄경 여래성기품)」 30편, 『진언집록』 2권, 불사리 1구 또는 2매, 석가여래 열반상 동판 1기, 유리니소탑(琉璃泥小塔) 99기 또는 77기, 각 탑마다 진언을 넣음, 『대반열반경』 17품의 이름들, ㉔십반야경.9)

여기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같은 조탑(造塔) 관련 경전 외에, 『법화경』과 『정명경』, 『수구즉득대자재다라니』, 『금강반야경』 등은 법사리(法舍利)의 개념 속에 탑 안에 봉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화엄경』 내지 『금광명경』, 『대반야경』, 『대반열반경』 등 방대한 경전의 경우 품명(品名) 내지 일부 품(品)만을 적어 봉안했는데, 이는 경전의 일부 품 내지 품명이 경전을 대표할 수 있다는 예에 의거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화엄경』의 경우 품명(品名)뿐만이 아닌 사상의 핵심과 본존 및 등장인물과 신중들이 명기된 것은 화엄십찰 중 하나인 해인사<sup>10)</sup> 불사(佛事)의 성격과 걸맞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기록 중 “①화엄 2불 명호(花嚴二佛名号)”는 <60권 화엄경>의 주존 노사나불, <80권 화엄경>의 주존 비로자나불을 뜻하는 것으로,<sup>11)</sup> 당시 60권과 80권 화엄경이 동시에 유통되는 가운데 노사나불과 비로자나불에 대한 신앙이 공존했음을 알려준다. 한편 “②40류 신중 열명(列名)”이란 <80권 화엄경> 「세주묘엄품」에 등장하는 청문중(聽聞衆)을 말하는 것으로, ①세주(世主) 보현보살과 ②집금강신(執金剛神)부터 ②0주

9) 『한국고대금석문』 「통일신라」, 塔銘 燈明. 寧二旃蒙年 百城山寺前臺 吉祥塔中 納法際記.

10) 『삼국유사』 卷第4, 義解第5, 義湘傳教, “湘乃令十刹傳教 …(중략)… 伽耶之海印 … .”

11) 1715년경 간행된 『예념왕생문』 「大方廣佛華嚴經 龍樹菩薩略纂偈」에서는 “南無華藏世界海 本師毘盧釋迦佛”이라 하여 華藏世界の 本師를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 등 二佛>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華藏世界品」에서 華藏世界の 13층에 위치한 娑婆世界の 교주 毘盧遮那佛과 化身 釋迦牟尼佛을 부각시키고자 한 까닭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二佛은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이 아닌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야신중(主晝神衆)까지 19류 신중, ㉑아수라(阿修羅)로부터 ㉔대자재왕(大自在王)까지 10류의 천부중(天部衆)을 포함한 40류(卅類) 성중(聖衆)과, 40류 성중 각각에 부수(附隨)한 - 보현보살의 경우 20위(位), 기타 신중의 경우 10위씩의 열명(列名)이 포함된 구성을 일컫는다.<sup>12)</sup>

또한 “③위광이 만난 불우(佛友)의 이름(威光所遇佛友名)”에서 위광은 <80권 화엄경> 「비로자나품」에 등장하는 희견선혜왕의 5백 왕자 중 첫째인 대위광(大威光) 태자를 말한다. 또한 그가 만난 불우(佛友)란 일체공덕산수미승운여래(一切功德山須彌勝雲如來)와 바라밀선안장엄왕여래(波羅蜜善眼莊嚴王如來), 최승공덕해여래(最勝功德解如來), 명칭보문연화안당여래(名稱普聞蓮華眼幢如來) 등으로, 「비로자나품」에 의하면 대위광 태자는 이들 여래의 설법을 듣고 청정한 지혜를 얻어 보살의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어 “④선재가 만난 55선우의 이름들(善財所携五十五善友列名)”이란 『화엄경』 「입법계품」 중 문수보살을 시작으로 보현보살에 이르기까지, 선재동자가 법을 구해 성불의 인(因)을 맺은 55인의 선우(선지식)를 일컫는다. 그리고 “⑤7처 9회 39품의 이름들(七處九會卅九品列名)”은 『화엄경』을 설법한 일곱 장소와 아홉 차례의 법회, 39품의 법문을 말한다.

또한 “⑥40심 십지의 이름(卅心十地名)” 중 40심(卅心)은 제2의 설법처 보광법당회에서 문수보살이 설한 10신(十信)과, 제3의 도리천궁회에서 법혜보살이 설한 10주(十住), 제4의 야마천궁회에서 공덕림보살이 설한 10행(十行), 제5의 도솔천궁회에서 금강당보살이 설한 10회향(十廻向) 등을 말하며, 십지(十地)는 제6의 타화자재천궁회에서 금강장보살이 설한 십지(十地)의 가르침 등 수행계차(修行階次)를 의미한다.<sup>13)</sup>

이상에서 볼 때 ‘길상탑 안에 납입한 법보의 기록’ 중 『화엄경』과 관

12) 『大方廣佛華嚴經』(T10, 2a-5b); 普賢菩薩의 경우 ①淨德妙光菩薩摩訶薩부터 ②大福光智生菩薩摩訶薩까지 20位の 列名이 경문에 실려 있으며, 執金剛神부터 大自在王까지 39位 神衆과 天部衆 역시 각각의 尊名에 이어 10位씩의 列名이 추가되어 있다.

13) 十信은 菩薩位가 아닌 까닭에 제외한다면 卅心에는 十地가 포함되며, 十地는 중복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련된 내용은 『화엄경』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현행의 「화엄경 약찬계」와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 기록 중 “밤에 화엄신증을 얻었다”거나 “화엄회를 설했다”는 내용과, 「천관산기」에 “밤에 정성껏 화엄신증을 부르고 예를 올렸다”는 내용, 그리고 895년 건립된 ‘길상탑에 납입한 법보의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7세기 이후 적어도 9세기 초반에는 현행의 「화엄경 약찬계」와 유사한 형태의 화엄신증 관련 예문이 성립되었을 것이다.

한편 후삼국기의 기록으로, 『가야산 해인사지』에는 화엄신증과 관련된 다음 내용이 실려 있다.

신라말에 승통(僧統) 희랑(希朗)이 이 절(해인사)에 주지하면서 화엄신증삼매(華嚴神衆三昧)를 얻었다. 당시 태조(왕건)가 백제 왕자 월광(月光)과 전투를 벌였는데 … (중략) … 태조는 … (중략) … 해인사에 들어가 희랑을 사사하였다. 대사가 용적대군(勇敵大軍)을 파견해 돕자, 월광은 금갑(金甲)이 공중에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이 신병(神兵)임을 알고 두려워 항복하였다.<sup>14)</sup>

위 내용 중 ‘화엄신증삼매’가 소개된 것은 화엄신증 신앙의 확산 예를 알려주며, ‘용적대군을 파견했다’ 함은 승군(僧軍, 緇軍)을 파병했으리란 점을 알려준다.<sup>15)</sup> 그런데 ‘용적대군’은 <80권 화엄경>에 “적의 대군에 용맹히 맞서는 야차왕은 일체 중생 모두를 빠뜨림 없이 수호함으로써 도에 머물고 해탈을 얻는 자”<sup>16)</sup>로 소개된 천왕으로, 야차왕이 소개된 점은 당시 화엄신증 신앙이 80권 『화엄경』에 근거했음을 알려주는 예이기도 하다.

14) 이지관(1992). 562-563.

15) 왕건과 후백제 견훤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은 895년 건립된 <묘吉祥塔>(보물)에 납입된 4매의 탑誌 중 「海印寺護國三寶戰亡緇素玉字」, 즉 “海印寺에서 나라와 三寶를 지키다 戰亡한 승려와 속인의 이름” 내지 僧訓이撰한 「五臺山寺吉祥塔詞」에 실려 있다. 특히 僧訓이 기록한 陰記 중 ‘哭緇軍’이란 내용에서 緇軍은 僧軍을 말하며, 이를 『가야산 해인사지』에서는 勇敵大軍이라 표현하였다.

16) 『大方廣佛華嚴經』(T10, 279a).



### Ⅲ. 고려시대 『신중경』의 성립과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중』

앞서 필자는 ‘길상탑에 납입한 법보의 기록’을 통해 통일신라대에 ‘화엄신중 관련 예문’이 성립되었을 것이란 점을 말한 바 있다. 그 ‘화엄신중 관련 예문’은 고려시대에 『신중경』(神衆經)이란 형식으로 정립되었을 것으로,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이하 『균여전』)<sup>17)</sup> 안에서 『신중경』과 관련된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즉 1075년 혁련정(赫連挺)이 찬(讚)한 『균여전』에 “균여(923-973)는 그의 누이 수명(秀明)에게 보현, 관음 양 선지식의 법문과, 『신중경』 및 『천수경』 두 경문을 가르쳐 주었다”<sup>18)</sup>는 것이다. 여기서 관음의 법문은 관세음보살의 구제 원력을 설하는 『천수경』을, 보현의 법문은 보현보살 구제의 행을 설하는 『화엄경』의 일부로서 『신중경』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균여 당대에 이미 『신중경』이란 형태의 정형화된 의식문이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균여전』은 1251년 간행된 『석화엄교분기원통초』 부록에 첨부된 것으로, 서문에는 “『신중경』 주주(注主) 대사 창운(昶雲, 1031-1104)”이 건넨 「실록구고」(實錄舊藁)를 바탕으로 이 책이 서술된 것임을 전하고 있다.<sup>19)</sup> 여기서 대사 창운은 ‘『신중경』의 주주(注主)’, 즉 ‘『신중경』의 주석을 행한 자’로, 1100년경 창운에 의해 『신중경』의 주석서 또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승 류창운(柳昶雲) 묘지명」에 의하면 “(창운은) 1031년에 태어나 승통(僧統)에 이르렀으며, 대각국사 의천(義天)도 그에게 가르침을 배웠다. 임종 때 그를 따른 학도 308명 중 경에 통달하고 불법의 이치를 실행할 수 있는 이가 백여 명이나 되었다”<sup>20)</sup> 하니, 『신중경』 내지 그가 저술한 ‘신중경 주석서’ 또한 그의 문도들에 의해 널리 확

17)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H4, 511-517).

18)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H4, 511).

19)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H4, 511a).

20) 허홍식(1984), 537. 「弘護寺等觀僧統昶雲墓誌」, “大平十一年始生 …(중략)… 以至僧統 …(중략)… 大覺國師一代宗匠之是一也亦嘗從而學訓之 …(중략)… 侍終學徒三百八中通經對義法理實○一百餘人.”

산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균여전』에 기록된 『신중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동국이상국집』에는 거란 침략기(1010-1018)에 기록된 「신중법석소」(疏)가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거란 백성은 본래 오랑캐 종족이다 …(중략)… 돌연 우리 강토에 침범하였으니 …(중략)… 엎드려 원하건대, 팔부(八部, 팔부신중)의 위력으로 삼군(三軍)의 사기 충만케 해주옵소서 “21)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신중법석」을 거행함에 『신중경』이 쓰였다면, 『신중경』 안에는 (팔부) 신중(神衆) 관련 내용이 크게 부각되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길상탑 안에 납입한 법보의 기록’에서와 같이 화엄 2불의 명호, 40류 신중의 열명(列名), 위광이 만난 불우(佛友)의 이름, 선재가 만난 55선우, 7처 9회 39품의 이름들, 40심 십지의 이름 등 화엄경의 중심 내용 또한 『신중경』에 담겨 있었을 것이다.

『신중경』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중경』으로 추정되는 몇몇 자료가 해인사 사간판본(寺刊板本)에 소장되어 있다.

### 1.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 1250년경

해인사 사간본 중 『신중경』과 관련해 주목할 유물로는 1250년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목판을 들 수 있다.<sup>22)</sup> 이 책 제1장 권수(卷首)에는 위태천 도상이 실려 있고, 이어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 제일(第一)”이란 경제(經題)에 이어 “우전국삼장사문(于闐國三藏沙門) 실차난타 역(譯)”이라 역자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경전은 “여시아문(如是我聞) 일시불(一時佛) 재마갈제국(在摩竭提國)”<sup>23)</sup>으로 시작되는 「세주묘엄품」 경문과는 달리, “나무비로자나불

21) 『동국이상국집』 제41권, 釋道疏, 「同前願神衆法席一七日踈」條, “彼契丹之民 本獮狃之種 …(중략)… 侵突我邦 …(중략)… 伏願借八部之威 助三軍之氣.”

22) 이 책의 목판은 15면으로 된 卷子本 형식으로, 국보 제206-4호로 지정되어 있다. 규장각에는 1920년대의 인출본이 소장되어 있다. 청구기호 奎中385; 임기영(2009), 52-53.

23) 『大方廣佛華嚴經』(T10, 1b).

법신비로자나불…” 내지 “나무제대보살마하살(南無諸大菩薩摩訶薩)…” 등의 내용이 쓰여 있으며, 독송을 위한 계송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2장 이하 모든 장(丈)에는, 일반적으로 경명(經名)을 써넣는 판수제(板首題)에 ‘신중(神衆)’이란 글자와 함께 二부터 十四까지 장차(張次)가 쓰여 있어, 이 경이 『신중경』이라 칭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15장에는 이 책이 『화엄신중(경)』(華嚴神衆경)임을 알려주는 다음 간기가 수록되어 있다.

伏爲」聖祚天長」清河相國 壽祿延弘 干戈不作」禾穀有稔 普與法界生亡 共登」樂岸 請山人 志閑 敬寫華嚴神」衆 募工雕板者」十二月日誌」順安山城防護別監 同縣令興威衛攝散員 李榮.<sup>24)</sup>

간기에 의하면 이 목판은 순안산성의 방호별감(防護別監) 이영(李榮)이 고려 고종대의 권신 최우(崔瑀, 1166-1249), 즉 청하상국(清河相國)의 수복과 법계 증생이 피안이 이르기를 발원한 것으로, 산인(山人) 지한(志閑)에게 「화엄신중」을 서사할 것을 청하여 각공을 모아 조판(雕板)한 것이다. 여기서 지한은 1244년에 조조된 『불설우바새오계상경』의 판각에 참여한 지한과 동일인인 것을 미루어,<sup>25)</sup> 이 목판은 대략 1250년경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도1).



도1.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 1250년경, 1930년경 인출본, 규장각(소장번호 奎中385)

24) 朝鮮總督府圖書館 編, 『海印寺經板題跋集』,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 한古朝21-434, 27.

25) 崔永好(2008), 155-156.

위 내용 중 산성 방호별감과 관련해 『고려사』 1236년 6월 기사에 “각도(道)에 산성 방호별감을 나누어 보냈다”<sup>26)</sup> 내지 1252년 7월 기사에 “각 산성에 방호별감을 나누어 파견하였다”<sup>27)</sup>는 기록, 그리고 “양산성의 방호별감으로 있으면서 몽고 군사들을 방어했다”<sup>28)</sup> 등의 기록은 방호별감이 몽고의 침략에 대비한 부대 편성임을 알려준다. 또한 『고려사』에는 몽고의 침략에 대해 1249년 8월~126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왕이 친히 ‘화엄신중도량’을 개설했으며, 1254년 5월 기사에 ‘천병(天兵) 화엄신중도량’을 개설한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동사강목』에 “화엄신중도량을 설치하였다. 이때 몽고와 장차 틈이 생기려 하자, 성신(星神)에 제사를 지내어 적병을 물리쳐 줄 것을 빈 것이 이루 다 적을 수가 없다”<sup>29)</sup>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방호별감 이영(李榮)이 『화엄신중(경)』을 판각한 것은 몽고 침입에 대한 ‘화엄신중도량’ 개설과 관련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의 경우, 40류 성중 각각의 명호(名號)에 이어 각 열명(列名)이 수록되어 있다. 보현보살의 경우 ①정덕묘광보살마하살부터 ⑳대복광지생보살마하살까지 20존의 열명이 수록되었으며, 집금강신부터 대자재왕까지 39위의 신중 및 천부중 역시 각각의 존명(尊名)에 이어 10존씩의 열명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40류 성중에 대해 각각 20존 및 10존씩 총 410존의 성중들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같이 성중의 명칭이 열명된 것은 앞서 『가야산 해인사지』의 기록 중 용적대군의 예와 같이 ‘적의 대군에 맞서는 신병(神兵)’으로서 신중(神衆)을 인식한 채 국토 수호를 기원한 역할이 『신중경』의 내용 구성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화엄신중(경)』은 15면에 총 607구의 계송 형식으로 다음과 같다.

26) 『고려사』 卷23, 世家 卷第23, 高宗 23年 6월 條.

27) 『고려사』 卷24, 世家 卷第24, 高宗 39年 7월 條.

28) 『고려사』 卷101, 列傳 卷第14, 諸臣 權世侯 條.

29) 『동사강목』 제11上, 壬子年(1252, 高宗 39) 條.

- (1) 본존 비로자나불 및 화엄경에 대한 귀의.
- (2) 「세주묘엄품」의 설처(說處) 범보리도랑에 모인 40류 신중에 귀의.
  - ① 제대보살(諸大菩薩) 및 보현보살에 대한 귀의.
  - ② 보현보살의 열명 - 10존의 동명보살(同名菩薩)과 10존의 이명보살(異名菩薩)에 대한 귀의.
  - ③ 집금강신부터 대자재천왕에 이르는 39위 신중과 각 신중의 열명(列名)에 귀의.
- (3) 제1회에서 8회 설법까지 각회(各會)의 설주.
- (4) 제9회 설법의 설주를 포함한 55선지식.

위 내용을 볼 때, 『화엄신중(경)』 목판에는 「백성산사 전대 길상탑중 납법침기」에 기록된 내용 중 ‘화엄 불 명호’, ‘40류 신중의 이름’, ‘선재가 만난 55선우’ 등이 실려 있으며, ‘7처 9회 39품의 이름’을 대신해 1회~9회 설법의 설주(說主)가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1250년경에 간행된 『화엄신중(경)』이 통일신라 이래 전해진 ‘화엄신중 관련 예문’이거나, 『균여전』에 언급된 『신중경』, 또는 균여 당시의 『신중경』에 각 신중의 열명이 추가된 형태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 2.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신중합부』

한편 해인사 동사간전(東寺刊殿)에는 13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엄신중’ 관련 의 또 다른 목판 일부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인출본이 『해인사사간본인집』에 실려 있다.<sup>30)</sup> 5면과 6면이 현존한 목판에는 40류 신중 가운데 주하신(主河神)부터 주방신(主方神)까지 7존의 열명(列名)과 각 신중의 도상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실린 신중 열명의 경우 1250년경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과 동일 문구가 실

30) 목판은 전체 5-6의 2면의 卷子本 형식으로, 국보 제206-4호이다. 해인사 東寺刊殿에 목판이 소장되어 있으며, 동국대중앙도서관에는 1900년대 인출본이 소장되어 있다. 동국대중앙도서관, 관리번호: 213 해69 v.3 // D13522. 『海印寺寺刊本印集』, 34-35면.

려 있어, 이 목판이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도2).



도2. [海印寺刊本印集], 화엄신중, 13세기말  
(1900년경 인출본, 동국대중앙도서관 소장번호 213 해69 v.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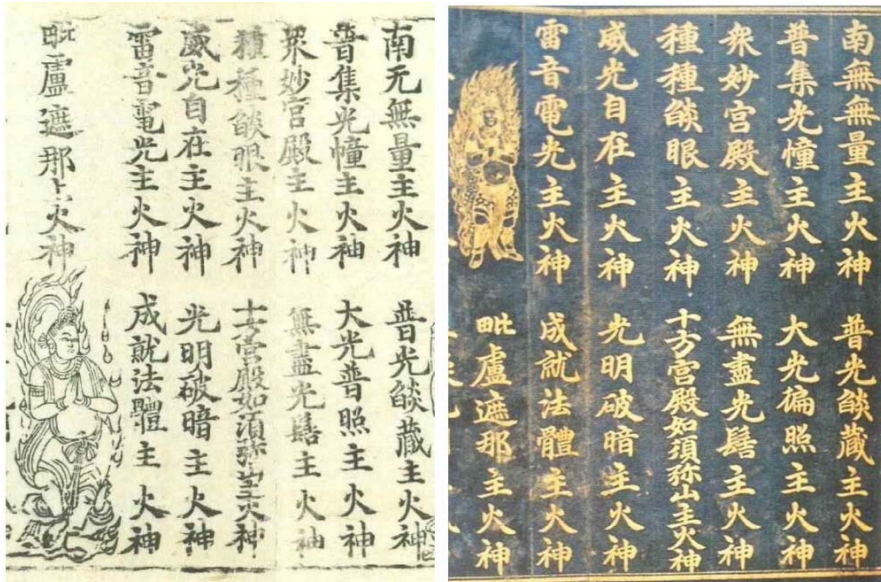
이 ‘화엄신중’ 관련 목판 내용과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신중합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경은 1350년 연안군부인 이씨가 망부 이사온과 망모 진씨, 망남편 김석(金碩)을 위해 간행한 것이다.<sup>31)</sup> 절첩본으로 된 이 사경의 앞면에는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변상」이란 방제(傍題)와 함께 〈보현보살설법도〉, 그리고 화엄경 「보현행원품」과 「여래수량품」이 서사되어 있다. 그리고 뒷면에는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 변상」이란 방제와 함께 「대방광 불화엄경 세주묘엄품」이 서사되어 있다. 그런데 앞면의 경우 「보현행원 품」과 「여래수량품」 전체 경문을 서사한 것과는 달리, 뒷면에는 『화엄 경』 「세주묘엄품」 중 일부를 발취해 도상과 함께 신고 있으며, 「입법계 품」에 등장하는 55명의 선지식이 동시에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도3).



도3.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신중합부], 1350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목록: 본관12728. 말미에 다음의 간기가 수록되어 있다. “至正十年庚寅二月 日誌 / 施主延安郡夫人李氏 慈行敬受 / 亡耦 司鄉 金碩 / 亡母 秦氏 / 亡父 宰臣 李思溫.”

그런데 『화엄경』 「세주묘엄품」이 실려진 사경 뒷면은 『해인사사간본 인집』에 실린 39위 신중 부분과 비교해 볼 때, 도상의 위치만이 상하로 바뀌었을 뿐 동일한 내용 및 도상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주화신(主火神) 부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도4).



도4. ‘화엄신중’ 板本과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신중합부]의 비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경의 뒷면 「세주묘엄품」 부분은 앞서 든 13세기말 제작 추정된 ‘화엄신중’ 관련 판본을 바탕으로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제작된 ‘화엄신중’ 목판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경본에 실린 내용의 경우, 1250년경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의 55선지식 중 ‘견고해탈장자(堅固解脫長子)’를 ‘견고해탈장자(堅固解脫長者)’라 하여 ‘長子’를 ‘長者’로 오류를 수정해 표기한 것만이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해인사 동사간전의 ‘화엄신중’ 관련 목판 내지 1350년 제작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신중합부』는 1250년경에 제작된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

것은 13세기 중반에 형성된 『신증경』의 형태가 14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3. 화엄신증 의례문의 간략화 -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

해인사 사간본 판전에는 앞서 든 기존 2종의 목판 외에, ‘화엄신증’ 관련 내용을 간략화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略神衆)』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인출본이 남아 전하기도 하는데,<sup>32)</sup> 그 목판 말미에는 “至正九年(1349) 閏七月日 □□菴散釋居悅幹緣」 同願入選神儉刊”이란 간행 기록이 실려 있어 1349년에 입선(入選) 신검(神儉) 등에 의해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총 2면의 판으로 구성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은, 15면에 607구(句)의 계송으로 구성된 1250년경 간행의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과는 달리,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란 제목에 이어 총 110구(句)의 본문으로 간략히 구성되었으며, 이런 까닭에 ‘약신증(略神衆)’이라 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도5).



도5. [大方廣佛華嚴經 略神衆], 전반 일부와 말미, 1349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2)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책의 1941년 인출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말미에 “此書 昭和十六年七月 特派館員于 名刹伽椰山海印寺 使之印出者也”란 기록이 쓰여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분류기호: <조선 총독부고서부 분류표 古朝21>.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중』 본문에는 대략 다음 내용이 실려 있다.<sup>33)</sup>

- (1) 화장세계의 삼신불과 삼세불에 대한 귀의 및 설경(說經) 연기(緣起).
- (2) 「세주묘엄품」의 설처(說處) 법보리도랑에 모인 40류 신중을 열명(列名) 없이 열거.
  - ① 보현보살 및 제대중(諸大衆).
  - ② 집금강신부터 대자재천왕에 이르는 39위 성중.
- (3) 제1회에서 6회 설법까지 각회(各會)의 설주와 7-8회 설법의 대표 청중.
- (4) 제9회 「입법계품」 설법의 청중.
- (5) 선재동자의 55선지식.
- (6) 설법 청중에 대한 찬탄.
- (7) 설법처에 대한 찬탄.
- (8) 7처 9회 설법과 39품의 명칭.
- (9) 부촉.
- (10) 화엄사상의 간략.

그런데 위 내용 중 40류 신중의 경우, 1250년경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에서는 각각 20존 및 10존씩 총 410위(位)의 성중들이름이 열명된 것에 비해,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중』에서는 20존 내지 10존씩의 열명이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적의 대군에 맞서는 신병(神兵)’으로서 신중(神衆)을 인식한 채 국토 수호를 위한 경전으로 『신중경』을 독송했던 몽고 침략기와는 달리, 1259년 몽고에 항복한 후 1274년 원(元)의 제국대장공주와 혼인한 충렬왕이 즉위한 이래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한 시점에서, 호국을 위한 『신중경』의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몽고의 침략기에 행해졌던 16회의 ‘화엄신중도량’과 1회의 ‘천병(天兵) 화엄신중도량’ 역시 126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설되지 않았던 점도 이런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

33)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중』은 현행의 「화엄경 약찬게」와 동일한 것으로, 「화엄경 약찬게」에 대한 전반적 해설은 전해주(1997)의 논문을 참조할 것.

할 수 있다.

이에 1349년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은 1250년경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과 비교해 볼 때, ‘적의 대군에 맞서는 신병(神兵)’으로서 신증의 역할을 강조한 이전의 예와는 달리, 『화엄경』의 전체 대의(大義) 내지 구성을 간략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에는 『화엄경』의 7처 9회 39품의 이름이 추가되었으며, 각 1회에서 6회까지의 설주 내지 품명(品名)을 통해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십지(十地) 등 화엄의 수행계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채, 말미에는 “39품의 원만교(圓滿教)를 풍송(諷誦)하고 수지(受持)함”을 권장하는 형태로 내용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은 제1구와 2구에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게” 즉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한 용수보살의 찬게(讚偈)를 간략한 것”이라 하여 이 계송의 찬자를 용수보살에 가탁(假託)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은 현행의 의식문 중 “과거현재미래세”가 “과거미래현재세”로 표기되었으며, “마야부인”이 “마야불모(佛母)”로, “야마천궁(夜摩天宮)”이 “야마궁중(夜摩宮中)”으로, “풍송차경(諷誦此經)”이 “풍송차게(諷誦此偈)” 등으로 표기되는 등 네 군데에서 몇 글자만이 차이가 있을 뿐, 현재 독송되는 「화엄경 약찬게」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현행의 「화엄경 약찬게」가 이미 14세기 중반인 고려말에 성립되었음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해 이색(李穡, 1328-1396)의 시문집 『목은시고』에 “나의 친구 이자용(李子庸, 1330-1385)이 ‘자기가 쓴 「화엄신략」(華嚴神略)을 나에게 보내 주고 또 송지(誦持)하기를 권했으므로, 시를 지어 희롱하다”<sup>34)</sup>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같은 예는 ‘화엄신증’ 관련 의례문이 일반

34) 『牧隱詩稿』 제5권, 詩, “予友李子庸 以所書華嚴神略見遺 且勸誦持 作詩爲戲 …(중략)… 當時華嚴會 千古猶如新.”

에까지 확산되었음과 함께, 14세기 중반에는 기존 『신증경』의 내용과 형식을 간략히 개편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화엄경 약찬계’의 저자가 이자용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동문선』에는 고려의 승려 석식 영암(釋息影庵)이 쓴 「선원사 비로전단청기」 중 ‘1384년 송나라에 가서 채색을 사들여 1385년 서편과 동편의 벽에 40존 신중(神衆)의 화상을 그렸으며, 1387년 겨울에 북쪽 벽에 55선지식의 화상을 그리고 12월 3일에 낙성연을 베푼 기록’<sup>35)</sup>이 발견된다. 이는 40류 신중과 선재동자의 55선지식을 담고 있는 『대방광 불화엄경 약신중』의 확산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IV. 조선시대 『신증경』의 교학적 수정, 「이대경약찬계」

한편 권근(權近, 1352-1409)의 문집 『양촌선생문집』에는 『신증경』 내지 「화엄경 약찬계」와 관련된 조선 초의 기록이 실려 있다.

생각건대 부덕한 사람이 …(중략)… 갑자기 대중의 뜻에 못 이겨 억지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략)… 장차 생겨날 재난과 근심 사라지기 바라며, 의당 ‘옛 법에 따른 기도(禱禮之舊法)’를 올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초하루(彌月之日)를 맞아 법회(梵采之儀)를 열어 낮에는 『금강반야(경)』의 문(文)을 강(講)하고, ‘밤에는 화엄신상(華嚴神象)의 계(偈)를 외우고자 합니다’. 이에 굽어살펴 주옵소서.<sup>36)</sup>

위 내용은 “장차 생겨날 재난과 근심 사라지기 바라는 예”로서 행해진 초하루 법회의 형식과 함께, 그 형식이 ‘옛 법에 따른 기도’임을 알려주고 있다. 즉 조선 초 이전부터 초하루 법회가 실행된 예를 전하고 있으

35) 『東文選』 제65권, 記, 「禪源寺毘盧殿丹青記」條.

36) 『陽村先生文集』 卷之27, 疏語類, 「誕日金剛般若披覽法席疏」條.

며, “밤에 화엄신상(華嚴神象)의 계를 외운다”는 법회 형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 중 ‘밤에 화엄신상의 계를 외운다’ 함은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 조에 보이는 “밤에 화엄신종을 염하며”<sup>37)</sup>라는 것과 동일한 것을 미루어, 밤에 ‘화엄신종’의 계를 외우는 전통이 고려 이전부터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에도 『신증경』이란 형태의 경전이 존재했거나, 1349년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 류의 의식문이 조선 초에 독송되었을 가능성을 알려주기도 한다.

### 1. 조선 초 『신증경』과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의 변이로서 「화엄신종」

조선왕조실록에는 『신증경』 관련이 다음 3건의 기사가 발견된다.

『태조실록』 : 숙위(宿衛)하는 사졸(士卒)에게 명하여 대궐 뜰에서 『신증경』의 「소재주」(消災呪)를 외우게 하였다.<sup>38)</sup>

『태종실록』 : 예문관 직제학 정이오가 진양에 사는 문가학이란 사람이 술법이 있어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천거하자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네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나를 위하여 한번 비를 빌라’ 하였다 …(중략)… 해시에 이르러 과연 비가 내리고, 이튿날 또 비가 왔다 …(중략)… 그 술법을 물으니 …(중략)… ‘내가 젊어서부터 항상 『신증경』을 외어 그 도(道)를 얻었는데, 무릇 평생에 원하고 바라는 것은 모두 내 술중(術中)에 있다’ 하였다.<sup>39)</sup>

『태종실록』 : 가학(可學)은 진주 사람으로 …(중략)… 개성 유후사(留後司)로 있으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달래며, 은밀히 생원 김천에게 말하기를, ‘이제 불법은 쇠잔하고 천문(天文)이 여러 번 변하였소. 내 『신증경』

37) 『三國遺事』 塔像第四, ‘臺山五萬真身’ 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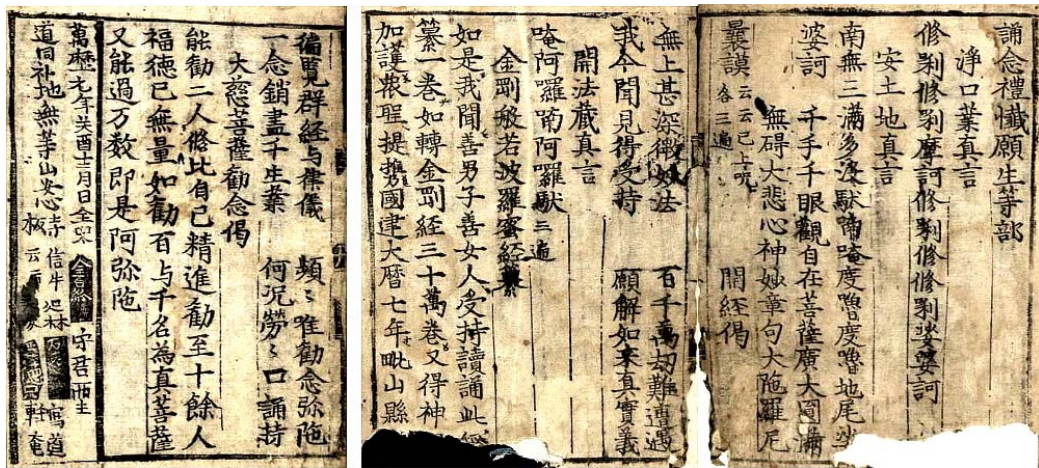
38) 『태조실록』 태조 2년(1393) 2월 27일.

39) 『태종실록』 태종 2년(1402) 7월 9일.

을 잃어 신(神)이 들면, 귀신(鬼物)을 부릴 수 있고, 천병(天兵)과 신병(神兵)도 부르기 어렵지 아니하오. 만일 인병(人兵)을 얻는다면 큰일을 거사할 수 있소' 하니...40)

위 내용은 먼저 조선 초에 재앙을 없앨 목적으로 『신중경』이 독송되었던 예를 알려준다. 한편 『태조실록』 기사 가운데 밤에 대궐을 지키는 사졸들에게 『신중경』의 「소재주」(消災呪)를 외우게 했다는 것은, ‘밤에 「화엄신중」 관련 계」를 외우는 전통이 존재했음과 함께 당시 존재한 『신중경』에 소재주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상에 의하면, 조선 초에 『신중경』이란 경전과 『신중경』에 소재주가 포함된 문헌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한 예를 들 수 있다. 1573년 무등산 안심사에서 간행된 『송념예참원생등부』가 그것으로,41) 이 책은 제목에서와 같이 ①송념(誦念), ②예참(禮懺), ③원생(願生)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 안에 다음 내용이 실려 있다(도6).



도6. [誦念禮懺願生等部] 卷首 및 卷末, 1573년, 무등산 안심사제, 동국대 불교기록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인용.

40) 『태종실록』, 태종 6년(1406) 11월 15일.

41) 『誦念禮懺願生等部』, 萬曆元年癸酉(1573)十二月日全羅道同社地無等山安心寺板.

① 송념(誦念) 부분

「정구업진언」, 「안토지진언」,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 신묘장구대다라니」, 「개경계」, 「개법장진언」, 「금강반야바라밀경찬」(纂), 「법화신중」(法華神衆), 「화엄신중」(華嚴神衆), 「불설소재길상다라니」(佛說消災吉祥陀羅尼),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 「능엄주」 등.

② 예참(禮懺) 부분

「계청삼보」(啓請三寶), 「원효화상 향수해」, 「염불53불」 등의 예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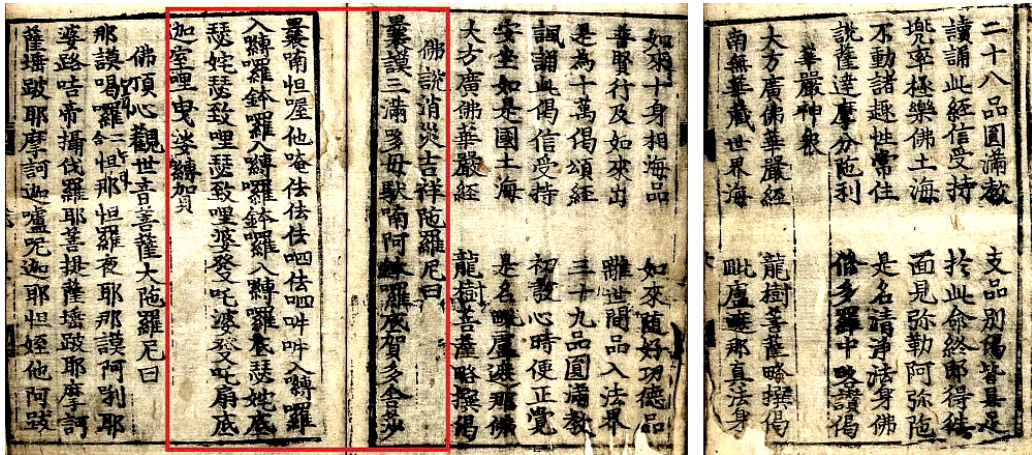
③ 원생(願生) 부분

「삼중정관송」(三種淨觀頌), 「발사홍서원」, 「여래십대발원문」, 「나옹화상발원문」, 「보통축원」, 「연수선사 사요간」(四料揀), 「대자보살권념계」 등.

이 가운데 송념 부분에는 (「정구업진언」 - 「개법장진언」까지) 독경을 위한 전반부에 이어 「금강반야바라밀경찬」과 「법화신중」, 「화엄신중」 등의 경문이 실려 있으며, 그 뒤에 「불설소재길상다라니」와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 「능엄주」 등 간략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앞서 든 『양촌선생문집』 중 “초하루를 맞아 법회를 열어 낮에는 『금강반야(경)』의 문(文)을 강(講)하고, 밤에는 화엄신상(華嚴神象)의 계(偈)를 외우고자 합니다”라는 내용과 합치되는 부분으로 송념(誦念) 부분과 『양촌선생문집』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초하루 법회 때 낮에는 송념 부분의 전반부에 이어 「금강반야바라밀경찬」과 「법화신중」을 독송했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저녁에는 “화엄신상의 계(偈)를 외웠다” 하니, 송념 부분 중 「화엄신중」과 그 뒷부분을 독송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태조실록』 중 “숙위하는 사졸에게 명하여 『신증경』의 「소재주」를 대궐 뜰에서 외우게 하였다”는 내용 역시 주목할 부분이라 하겠다. 여기서 ‘소재주’는 송념 부분 중 「화엄신중」에 이어 수록된 「불설소재길상다라니」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를 증명이라도 하듯, 『송념예참원생등부』에는 「화엄신중」에 이어 「불설소재길상다라니」가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도7).



도7. [誦念禮懺願生等部] [화엄신중] 부분, 1573년, 무등산 안심사刊, 동국대 불교기록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인용.

그런데 여기 실린 「화엄신중」 부분은 1349년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중』과 비교해 볼 때 “과거미래현재세”를 “과거현재미래세”로, “야마궁중”을 “야마천궁”으로, “풍송차계(諷誦此偈)”를 “풍송차경(諷誦此經)”으로 표기한 것만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려 때 성립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중』은 조선 초기에는 「화엄신중」이라 불렸으며, 이때의 「화엄신중」에는 「불설소재길상다라니」와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 「능엄주」가 추가된 형식이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금강반야바라밀경찬」 및 「법화신중」과 「화엄신중」 등이 포함된 위 송념 부분은 당시에 독립적으로 『신중경』이라 불렸을 가능성 또한 생각할 수 있다.

## 2. 『신중경』의 교학적 수정, 이대경약찬게(二大經略纂偈)

『송념예참원생등부』의 송념 부분에 실린 「법화신중」과 「화엄신중」의 주존 석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은 조선 초 의식절차에서 거불(學佛)의 대상으로 등장한 예를 볼 수 있다. 1496년 인수대왕대비가 간행한 『진언권공』의 「작법절차」 ‘거불’ 항목에 ‘법화칙(法華則)’과 ‘화엄칙(華嚴則)’이 실려 있는 것이다.<sup>42)</sup> 또한 1575년 보림사 간행의 『제반문』에는 『송념예

참원생등부』의 송념 부분에서와 같이 「금강반야바라밀경찬」과 「공양문」의 ‘작법절차’ 항목에 ‘법화거불’과 ‘화엄거불’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는데,<sup>43)</sup> 이는 「금강반야바라밀경찬」과 「법화신중」, 「화엄신중」이 포함된 『신중경』에 해당될 - 부분이 불교의식의 중요 축을 형성했음을 알려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런데 1634년 용복사 간행의 『영산대회작법절차』<sup>44)</sup> 이후에는 더 이상 ‘법화칙’과 ‘화엄칙’ 내지 ‘법화거불’과 ‘화엄거불’이 의식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법화신중」 내지 「화엄신중」이 실린 『신중경』 관련 내용이 17세기 중반 이후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예로는 1769년 봉정사에서 간행된 『청문』(淸文)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전반부에 「신중작법절차」와 「신중약례절차」, 「조모신중작법절차」, 「신중배송절차」, 「신중위목」, 「약례신중위목」 등을 싣고 있는 것으로,<sup>45)</sup> 현존하는 신중(神衆) 의식문의 최초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826년 간행된 백파 공선(白坡巨璇, 1767-1852)의 『작법귀감』(上) 「신중대례」(神衆大禮)와 「신중조모작법」(神衆朝暮作法) 항목에 내용 일부가 수정된 채 실려 있기도 하다.<sup>46)</sup> 그런데 이들 책에서는 ‘신중청’의 예배 대상이 기존의 「법화신중」 내지 「화엄신중」이 아닌, 예적명왕(機跡明王)과 팔대금강(八大金剛), 십대명왕(十大明王)을 위주로 범왕(梵王)과 제석(帝釋), 사대천왕(四大天王), 일월천자, 20천주(天主), 북두대성, 칠원성군, 삼태육성, 28수(宿) 등 전혀 다른 신격(神格)으로 변해 있다. 그리고 이후 조선 말까지 어떤 의식문에도 「법화신중」 내지 「화엄신중」이 실리지 않는 것이다.

42) 『眞言勸供』, 弘治九年 夏五月日跋. 「作法節次」 항목 중 ‘法華則’과 ‘華嚴則’ 부분, 28-29.

43) 『諸般文』, 萬曆三年乙亥(1575)三月日全羅道長興府 迦智山寶林寺開板. 「供養文」 ‘作法節次’ 항목, 74-82.

44) 『靈山大會作法節次』, 崇禎七年甲戌(1634)九月日 京畿朔寧水清山龍腹寺刊. 9.

45) 『淸文』, 乾隆己丑(1769)季冬慶尙道安東鳳停寺開板. 1-24.

46) 『作法龜鑑』(上), 時道光六年丙戌(1826)二月日白坡老衲識. 「神衆大禮」, 「神衆朝暮作法」 항목. 36-46.



이후 「법화신증」과 「화엄신증」은 몇몇 문헌에서 그 내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문에서가 아닌 ‘약찬계’라는 독립된 계송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교학적 관점에서 수정 보완된 형태로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예념왕생문』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간행년 내지 편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월저 도안(月渚道安, 1638-1715)이 찬집한 것으로 추정되며 금강산 보현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 간행과 관련해서 『월저당대사집』 「예념문일천권인출권문」(禮念文一千卷印出勸文) 항목에 “아침에 해 뜰 때, 나는 무상귀(無常鬼)가 도래함을 알고 …(중략)… 『예념왕생문』 1천 권을 인출하고자 시주를 구하오니, 모름지기 시주(君)께서는 짐작 버리고 시주하소서”<sup>47)</sup>라는 구절이 실려 있다. 이에 이 책은 월저도안이 그의 만년인 1715년경에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 뒷부분에는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와 「일승묘법연화경 보장보살약찬계」(寶掌菩薩畧纂偈) 등 「이대경약찬계」(二大經畧纂偈)가 실려 있다.<sup>48)</sup> 이 2종의 약찬계는 1구(句) 7자의 계송으로 구성되었으며, 한문 계송에 이어 한글로 음을 달아 편찬되었다(도8).



도8. [禮念往生文] [二大經畧纂偈] 부분, 1715년경 간행, 고양 원각사 소장.

47) 『月渚堂大師集』(下)(H9, 117a).

48)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禮念往生文』 83-90면 참조.

[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NC\\_06175\\_0001](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NC_06175_0001).

이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게」의 경우 1349년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 내지 1573년 안심사 간행의 『송념예참원생등부』 중 「화엄신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실어 두었다. 이에 이 수정부분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바, -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과 『송념예참원생등부』에 실린 「화엄신증」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 1349년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과 1715년경에 간행된 『예념왕생문』의 「이대경약찬게」 중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게」만을 비교해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과 [예념왕생문]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게]의 내용 비교

수정 부분	大方廣佛華嚴經 略神衆, 1349년	예념왕생문, 二大經略纂偈 중 용수보살약찬게, 1715년경
1	南無華藏世界海 毗盧遮那真法身 現在說法盧舍那 釋迦牟尼諸如來 過去未來現在世 十方一切諸大聖 根本華嚴轉法輪 海印三昧勢力故	南無華藏世界海 本師 毘盧釋迦佛 法菩提場成正覺 普現十種無邊身 融三世間 法界雲 十方塵刹七處中 九會常說華嚴經 圓滿海印三昧力
2	⑦金剛慧 ⑧光焰幢 及⑨須彌幢	⑦普賢菩薩普賢士 ⑧光焰幢 及⑨地威力
3	⑤善財童子 ⑥童男女 其數無量 不可說 善財童子善知識	⑤童子衆與 ⑥童女等 數各五百 來集中 善財童子 參善友
4	於蓮華藏世界海 助化莊嚴大法輪	於蓮華藏世界海 輔翼恒轉大法輪

첫 번째 수정 부분의 경우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증』은 삼신불과 삼세불 및 제대성(諸大聖)에 대한 귀의와, 그들이 근본화엄의 법을 굴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예념왕생문』에서는 본존 비로자나와 법보리장에서 정각을 이룬 실제의 설주 석가모니, 그리고 보현보살과 10불(十種無邊身), 그리고 응삼세간(融三世間) 법계의 여러 부처(法界雲)에 대한 귀의에 이어, 이들이十方塵刹(十方塵刹)의 7처에서 9회에 걸쳐

『화엄경』을 상설(常說)함을 말하고 있다. 즉 경전에 근거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수정 부분의 경우, 이 앞에는 ①보현, ②문수, ③법혜, ④공덕(림), ⑤금강당, ⑥금강장 등 제1회에서 6회까지 각 회의 설주(說主) 보살을 명기한 후,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중』에서는 7회 설법의 청중 가운데 하나인 ‘⑦금강혜’를 싣고 있다. 이에 비해 『예념왕생문』은 ‘⑦보현보살 보현사(普賢士)’라 하여 7회와 8회, 9회 설법의 설주인 보현보살을 중복해 싣어 9회 설법의 설주 모두를 싣고 있다. 이어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중』 가운데 ⑧광염당, ⑨수미당은 9회 설법인 「입법계품」에 등장한 보현행원을 성취한 500명의 보살 중 맨 앞에 거론된 2명인 ‘광염당(보살)과 수미당(보살)’을 말하는데, 『예념왕생문』의 경우는 광염당(보살)과 11번째로 거론된 지위력(地威力)(보살)을 들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이어 “⑤선재동자 ⑥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부분은 지말법회에서 문수보살이 복성(福城) 동쪽의 사라림(娑羅林)에서 설법할 때 모인 대중을 든 것으로, 경문에는 500명씩의 우바새와 우바이, 동자 동녀가 모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예념왕생문』은 “⑤동자중(童子衆) 여(與) ⑥동녀(童女) 등 수(數) 각오백(數各五百) 래집중(來集中)”이라 하여 경문에 따라 “其數無量 不可說”이 아닌 “數各五百 來集中”이라 정확히 표현했음을 볼 수 있다. 이어 “선재동자 선지식”이 아닌 “선재동자 참선우(參善友)”라는 표현은 ‘선재동자가 참배(參拜)해 법을 물은 선우(善友)’를 명기한 것으로, 이 역시 경문의 뜻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어연화장세계해(於蓮華藏世界海) 조화장엄대법륜(助化莊嚴大法輪)”은 55선지식에 대한 서술 내용으로 (그들은) 항상 비로자나불을 따라 “저 연화장세계에서 대법륜을 조화 장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예념왕생문』은 이 부분을 “보익항전대법륜(輔翼恒轉大法輪)” 즉 “항상 대법륜을 굴리게 돕는다”라는 좀 더 수공할 만한 표현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 수정 부분에 이어, 『예념왕생문』은 보광명전(普光明殿)부터 보문국(普門國) 소마나성(蘇摩那城)에 이르기까지 9회 설법에 따른 각 설법 장소를 7자 44구의 계송으로 추가하고 있다. 『화엄경』 내용에 따라 설법 장소 및 설법 내용에 따른 44구의 계송을 도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49)</sup> (추가된 44구의 계송은 아래 <표 2>와 같이 ① - ④까지 번호를 붙여 구분하였다.)

<표 2> [예념왕생문]에 추가된 9회 설법에 따른 각 설법 장소

9회 설법(설법 내용)		설법처
	제1회	①法菩提場
	제2회	①普光明(殿)
	제3회	②忉利天宮
	제4회	②夜摩天
	제5회	③兜率陀天
	제6회	③他化天
	제7회	④普光明殿
	제8회	④普光明(殿)
제9회	근본법회	⑤舍衛大城 逝多林
	십신 十信	⑥善住樓南 福城東 ⑦娑羅林中 大塔廟
	십주 十住	⑧從此南行 勝樂國 ⑨妙峯山南 海門國 ⑩楞伽道傍 海岸上 ⑪達里鼻國 自在城 ⑫住林聚落 一紀至 ⑬閻浮提畔 摩利國 ⑭普莊嚴園 那羅素 ⑮伊沙那村 火聚山 ⑯獅子奮城
	십행 十行	⑯三眼國 ⑰名聞國 南海住城 ⑱大興城 南獅子宮 ⑲藤根國中 普門城 ⑳多羅幢城 妙光城 ㉑安住王都 無量都
	십회향 十廻向	㉒廣大國土 樓閣城 ㉓可樂城南 輸那城 ㉔迦陵迦城 日光園 ㉕險難國 南善度城 ㉖補怛洛伽 妙藏界 ㉗普勝佛所 來輪圍 ㉘還至摩竭 菩提場

49) 도표는 용학編, 『華嚴經略纂偈要解』(cafe.daum.net/01085232200) 참조.

십지 十地	②9迦毘羅城 又覺場 ③0此近衆會 去不遠 ③1法菩提場 如來會 ③2又其會中 道場中 ③3迦毘羅東 二十里 ③4嵐毘尼園
등각 等覺	③4迦毘城 ③5此世界中 三十三 ③6迦毘羅城 摩竭提 ③7南方沃田 此城中 ③8出生城南 法聚落 ③9妙意華城
묘각 妙覺	③9海岸國 ④0大莊嚴園 大樓閣 ④1漸次行經 百十城 ④2普門國中 蘇摩那 ④3還至毘盧如來前 ④4衆會中有 宝蓮華

그런데 이처럼 내용에 수정을 가하고 설법 장소를 계승으로 추가한 것은 『화엄경』에 해박한 인물이어야 가능할 것으로, 이는 간행자 월저도안이 기존 「화엄경 약찬계」를 수정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저당대사집』 말미에 실린 향해연종(香海蓮宗)의 발문에 “(월저당대사는) 언제나 화엄법계에 뜻을 두었으니 청량국사와 방불하였다”<sup>50)</sup>고 했듯이, 월저도안은 당대 화엄학의 대가였던 까닭에 이같은 수정 및 추록이 가능했을 것이다.

### 3. 『화엄법화약찬총지』(華嚴法華略纂摠持)

『예념왕생문』에 실린 「이대경약찬계」는 이후 1885년 해인사 간행의 『화엄법화약찬총지』<sup>51)</sup>에 재차 수록된다. 이 책 서두에는 인파(仁波)의 법손 용성천오(龍星天昨)의 서문과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서문 가운데 “화엄과 법화가 삼장의 문을 여는 열쇠(關鍵)라면 약찬총지(畧纂摠持)는 일승(一乘)의 중요 획을 긋는 것(輻輳)으로 불계(佛界)에 드는 첩경이며, 조사의 관문(祖關)을 꿰뚫는 현문(玄門)”<sup>52)</sup>이라 하였다. 또한 발문에는 “모든 게 쇠퇴하는 시대에 선교(禪敎)와 정토 외에 불업(佛業)에 드는 요체가 흠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취합하고자 했으나, 병으로 인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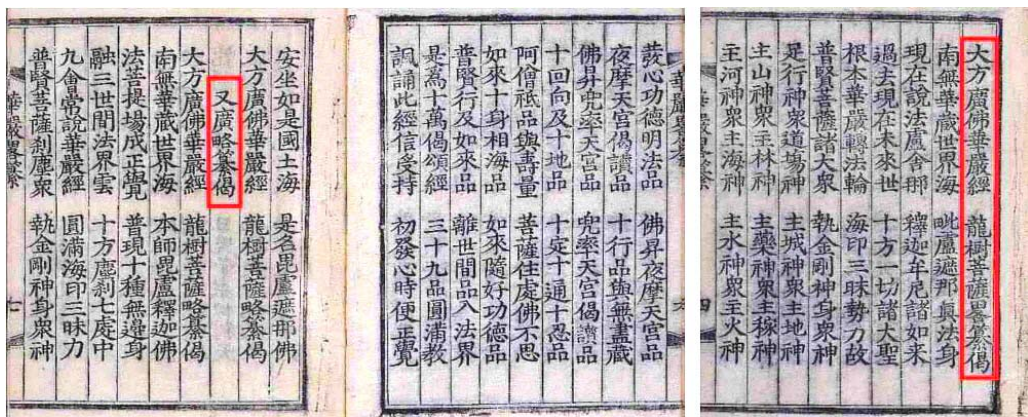
50) 『月渚堂大師集』(下)(H9, 121b). “恒留意華嚴法界 衍佛清涼國師.”

51) 『華嚴法華略纂摠持』, 光緒11年乙酉(1885)4月日 陝川郡海印寺開刊.

52) 『華嚴法華略纂摠持』, 『華嚴法華畧纂摠持並序』.

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경허평진(敬虛平珍) 스님께서 추담정신(秋淡井辛) 스님이 편찬한 소장본을 내어 주셨기에 미력한 힘을 다해 판에 새기게 되었다”<sup>53)</sup>라고 이 책의 간행 연유가 설명되어 있다. 한편 이 책 간행에 감수를 맡았는데, 그는 1869년 해인사 간행의 『불가일용작법』을 편찬한 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서문에 이어 『화엄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징관(澄觀)의 「대방광불화엄경소 서」(序), 그리고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와 「광약찬계」(廣略纂偈),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 백십팔총지문」 등이 실려 있다.(도9)



도9. [華嚴法華畧纂摠持]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 부분, 1885년, 해인사 간행 고양 원각사 소장.

그리고 『법화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대승묘법연화경 석제」(釋題)와, 「일승묘법연화경 보장보살약찬계」, 그리고 「묘법연화경 제7권 제26품 5다라니」가 실려 있어, 이는 화엄과 법화 등 두 경(經)의 요점을 초략(抄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와 「광약찬계」(廣略纂偈)로서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는 1573년 간행의 『송념예참원생등

53) 『華嚴法華畧纂摠持』, 「跋」.

부』에 실린 「화엄신중」과 비교해 볼 때 ‘증생신’을 ‘주야신’이라 쓰고, ‘마야불모’를 ‘마야부인’으로, ‘도솔궁중’을 ‘도솔천궁’으로 쓴 것만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광약찬계」는 1715년경 간행의 『예념왕생문』 「이대경약찬계」 중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와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화엄법화약찬총지』에 실린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와 「광약찬계」 부분은 기존에 전래된 두 종류의 약찬계를 광본과 약본으로 구분해 실어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승묘법연화경 보장보살약찬계」 역시 1715년경에 간행된 『예념왕생문』 「이대경약찬계」 중 「일승묘법연화경 보장보살약찬계」와 동일한 내용을 실고 있다. 이에 『화엄법화약찬총지』는 16세기와 18세기에 간행된 2종의 「약찬계」를 또다시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으로, 이는 발문에 밝혔듯이 “불업(佛業)에 드는 요체를 취합하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 1769년 봉정사에서 간행된 『청문』의 「신중작법절차」 등을 통해 예적명왕과 팔대금강 등으로 예배 대상이 변화된 이래, 기존 『신중경』 내지 「화엄신중」의 ‘약찬계’는 의식문이 아닌 교학(敎學)의 대상으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화엄신중」의 ‘약찬계’가 의식문(儀式文)에 수록된 것은 1935년 『석문의범』의 간행과 함께였다. 『석문의범』에는 먼저 봉정사 간행의 『청문』에 실린 신중 관련 의문(儀文)을 상당 부분 수정해 실어 두었다. 즉 상권의 「1 예경편」 중 ‘제10 신중단’ 항목에 104위 내지 39위 신중의 위목(位目)에 대한 〈신중작법〉을 실어 두었으며,<sup>54)</sup> 하권의 「6 각청편」 중 ‘제9 신중청’ 항목에 헌공의식을 실어 두었는데,<sup>55)</sup> 이 부분은 현행의 ‘신중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하권의 「8 배송편」 중 ‘제3 신중배송’ 항목에 〈제3 불사회향 신중배송〉의 내용을 실어 두었다.<sup>56)</sup> 이

54) 安震湖(1935), 58-69.

55) 安震湖(1935), 28-33.

56) 安震湖(1935), 92-93.

외에 『석문의범』 권하 부록의 「지송편」(持誦篇) 중 ‘제4 약찬계’라는 항목에는 「화엄경 약찬계」가 실려 있는데,<sup>57)</sup> 이것은 1885년 해인사 간행의 『화엄법화약찬총지』 중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와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지송편(持誦篇)에 속한 「화엄경 약찬계」는, 이후 일상의식 중에서 도량석의 송주(誦呪)를 대신해 사용되었다. 또한 1926년 경봉스님의 『일지』에 “天氣晴朗也 是日부터 山林祈禱 神衆佛供하다”<sup>58)</sup>는 내용을 통해 볼 때, 통도사 화엄산림의 연례법회는 1926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연례법회를 거행하는 가운데 ‘화엄산림 법회의식’ 내지 ‘신중불공 의식’에 「화엄경 약찬계」가 추가되었으며, 이 예가 널리 확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가 의식문에 공식 수록된 것은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간행한 『통일법요집』<sup>59)</sup>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통일법요집』 ‘상용의식’ 항목 중 「신중청」 말미에 「화엄경 약찬계」가 수록되어, 이전 시기의 『신중경』이란 형태는 아닐지라도, 예적금강을 위주로 한 의식문 중 일부로나마 「화엄경 약찬계」가 남아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 V. 결어

이상 필자는 기존 연구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화엄경 약찬계」와 『신중경』의 성립 및 전개에 대해 약술하였다. 이를 통해 1250년경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이 『화엄신중(경)』이라 불렸음과 함께,

---

57) 安震湖(1935), 202-205.

58) 鏡峰(1926). 1926년 2월 9일 日誌.

59)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1998).



1349년에 『화엄신중(경)』을 간략한 『대방광불화엄경 약신중』(略神衆)의 간행을 통해 현재의 ‘화엄경 약찬게’가 성립되었음을 말하였다.

또한 1573년 안심사 간행의 『송념예참원생등부』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찬」과 「법화신중」, 「화엄신중」이 포함된 조선 초 『신중경』의 구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때의 『신중경』은 당시 불교의식의 중요 축을 형성하였으나, 17세기 중반 이후 「법화신중」 내지 「화엄신중」이 실린 『신중경』 관련 내용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다. 한 예로 「화엄신중」의 경우, 1769년 봉정사 간행의 『청문』에서는 기존 ‘화엄신중’이 아닌 예적명왕과 범왕, 제석 등을 위주로 예배 대상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화엄신앙의 주존(主尊)이 예적명왕 등으로 변한 상황에서도 기존 『신중경』에 근거한 교학적 연구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1715년경에 찬집된 『예념왕생문』에 실린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게」에서는 기존 「화엄경 약찬게」에 대한 교학적 연구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 「광약찬게」라는 새로운 형식의 약찬게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 내용은 “불업(佛業)에 드는 요체를 취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885년 해인사 간행의 『화엄법화약찬총지』에 또다시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후 「화엄신중」의 ‘약찬게’는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간행한 『통일법요집』 ‘상용의식’ 항목 중 「신중청」 말미에 의식문의 한 부분으로 수록되어, 한국불교 의식문의 일부로나마 남아질 수 있었다.

### 1. 약호 및 원전류

『大方廣佛華嚴經』(T9)

『大方廣佛華嚴經』(T10)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H4)

『月渚堂大師集』(下)(H9)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신중합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사』

『大方廣佛華嚴經 略神衆』, 朝鮮總督府圖書館 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국이상국집』

『東文選』

『동사강목』

『牧隱詩稿』

『三國遺事』

『誦念禮懺願生等部』, 萬曆元年癸酉(1573)十二月日 全羅道同補地無等山安心寺板.

『陽村先生文集』

『靈山大會作法節次』, 崇禎七年甲戌(1634)九月日 京畿朔寧水清山龍腹寺刊.

『諸般文』, 萬曆三年乙亥(1575)三月日全羅道長興府 迦智山寶林寺開板.

『眞言勸供』

『請文』, 乾隆己丑(1769)季冬 慶尙道安東鳳停寺開板.

『태조실록』

『태종실록』

『海印寺經板題跋集』, 朝鮮總督府圖書館 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海印寺寺刊本印集』, 동국대중앙도서관 소장.

『華嚴法華略纂摠持』, 光緒11年乙酉(1885)4月日 陝川郡海印寺開刊.

### 2. 단행본

鏡峰(1926), 『日誌』, 통도사 극락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1998),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安震湖 編(1935), 『釋門儀範』(下), 卍商會, 昭和10.

이지관 編著(1992), 『伽倻山海印寺誌』, 『伽倻山海印寺古蹟』, 가산불교문화연구원.

崔永好(2008),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허흥식(1984), 『韓國金石全文』(中世上), 亞細亞文化社.

### 3. 논문류

남동신(1993), 「羅末麗初 華嚴宗團의 대응과 <華嚴神衆經>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연구소.

임기영(2009), 「海印寺 寺刊板殿 所藏 木板 研究」,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해주(1997), 「<華嚴經 略纂偈>에 대한 考察」, 『석림』 31집, 동국대학교 석림회.

### 4. 기타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이트. <https://kabc.dongguk.edu/viewer/용학編>, 「華嚴經略纂偈要解」 (cafe.daum.net/0108523220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통일신라」 塔銘 燈明 條.

##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Briefly Edited Verses of the Avataṃsaka Sūtra* and the *Guardian Deities Sūtra*

Moon, Sangleun  
(Ven. Junggak)

This study aims to provide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Briefly Edited Verses of the Avataṃsaka Sūtra* by presenting newly discovered historical materials based on prior research on the subject. It is revealed that the Section of the Wonderful Adornments of the Leaders of the World of the Avataṃsaka Sūtra published around 1250 was called the *Avataṃsaka Guardian Deities (Sūtra)*, and this sutra in 1939 was shortened into the *Briefly Edited Guardian Deities of the Avataṃsaka Sūtra* which publication brought the establishment of today's *Briefly Edited Verses of the Avataṃsaka Sūtra*.

The *(Avataṃsaka) Guardian Deities Sūtra* then formed an important axis in the Buddhist rituals during the early period of Joseon. According to the Song Nyum Ye Cham Won Seng Deung Bu published at Ansimsa Temple in 1753, the Sūtra was comprised of the *Praise of Diamond Sūtra*, the *Lotus Guardian Deities*, and the *Avataṃsaka Guardian Deities*.

Since the 17th century, however, the object of worship in the *Avataṃsaka Guardian Deities Sūtra* has shifted into Ucchusma Bright King (機跡明王) and Brahma King (梵王), and the preexisting guardian

deities were excluded from being observed. Even in this situation, the Nagarjuna Bodhisattva's *Briefly Edited Verses of the Avataṃsaka Sūtra* in the Ye Nyum Wang Seng Mun edited and compiled around 1715 gave birth to newly formatted the Extensively Edited Verses (廣略纂偈). This work was included in the Avataṃsaka and Lotus Briefly Edited Dharani published in 1885 in order to “compile the essence to enter the Buddha karma”. The *Briefly Edited Verses of the Avataṃsaka Sūtra* found here was finally included as part of the end of the Guardian Deities Prayers under the section of everyday liturgy in the Tong Il Beop Yo Jip published in 1998.

#### Keywords

Avatamsaka guardian deities, *Briefly Edited Verses of the Avataṃsaka Sūtra*, *Guardian Deities Sūtra*, Section of the Wonderful Adornments of the Leaders of the World, Ye Nyum Wang Seng Mun, Avataṃsaka and Lotus Briefly Edited Dharani, extensively edited Verses

논문투고일: 2022. 12. 30. 심사완료일: 2023. 02. 02. 게재확정일: 2023. 02. 12.